

여성결혼이민자의 노인에 대한 태도

박지영¹, 이창식^{2*}

¹고구려대학 다문화복지과, ²한서대학교 아동·청소년복지학과

A Study on the Attitudes of Women Immigrants toward the Elderly

Ji Young Park¹ and Chang Seek Lee^{2*}

¹Dept. of Multi-Cultural Welfare, Koguryeo College

²Dept. of Child and Adolescent Welfare, Hanseo University

요 약 이 연구는 592명의 여성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이들의 개인적, 한국 가족 및 모국 가족 특성에 따른 노인에 대한 태도와 이를 예측하는 변인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연구는 2010년에 진행하였으며, 조사도구는 Sanders 등의 노인에 대한 태도 척도를 사용하였고, 분석은 평균비교와 위계적 회귀분석을 주로 사용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여성결혼이민자의 노인에 대한 태도는 연령, 거주지, 배우자의 교육수준, 가정소득, 모국 부모 부양 희망 및 모국 가족과의 연락 정도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둘째, 위계적 회귀분석 결과 노인에 대한 태도의 설명력은 한국 가족 특성이 가장 높았으며, 예측변인은 연령, 거주지, 가정 소득, 모국 부모 부양 희망으로 나타났고, 그 중에서 가정소득이 가장 영향력 있는 변인으로 나타났다.

Abstract This study was carried out to analyse the differences in the attitudes toward the elderly according to the characteristics of women immigrants, and identify the variables to predict the attitudes toward the elderly. The participants were 592 women immigrants sampled from six cities and one county. The major results of the study were as follows. Firstly,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in the attitudes toward the elderly depending on age, residential area, spouse's educational level, family income, hope to support homeland's parents, and contact with homeland's family. Secondly, the characteristics related with Korean family explained the largest portion of the attitudes toward the elderly, and predictors of the attitudes were age, residential area, family income, and hope to support homeland's parents.

Key Words : Women immigrant, Attitude, The elderly, Attitude toward the elderly

1. 서론

한국 사회는 저출산, 고령화와 혼인수급의 불균형 등으로[1] 외국인과의 결혼하는 국제결혼이 매년 거의 10,000건씩 증가하여 전체 결혼대비 국제결혼비율은 2009년에 10.8%를 차지하였고, 결혼이민자는 125,087명이며, 이중 여성결혼이민자는 109,211명에 이르고 있다[2].

여성결혼이민자는 한국인 남성과 결혼을 함으로써 부모를 부양하는 외국인 부양자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맡게 된다. 특히, 전국의 여성결혼이민자가 부부와 자녀 및 배우자 가족과 동거하는 비율이 17.2%로 높고 이중 농촌(읍·면 지역)에 거주하는 여성결혼이민자가 부모나 남편

의 형제자매와 동거하는 비율이 41.3%로[1] 높아 농촌 여성결혼이민자의 절반이 부모 부양의 역할과 책임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여성결혼이민자의 부모들이 대체로 고연령층이 많아 한국 문화에 낯설은 여성결혼이민자에게는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즉, 국제결혼한 부부의 평균 연령 차이는 한국인 남성-외국인 여성의 경우 11.8세로 한국인 남성의 연령이 상대적으로 많은데 [3] 이는 여성결혼이민자의 부모가 고연령층인 것으로 추론이 가능하며, 따라서 부양 부담이 높음을 시사한다.

한편 태도는 어떤 주어진 대상에 대한 생각 또는 사람에게 긍정적으로 또는 부정적으로 반응하는 경향[4]인데 노인에 대한 태도가 부양외식에 영향을 주는 요인[5-8]인

*교신저자 : 이창식(lee1246@hanmail.net)

접수일 11년 11월 02일

수정일 11년 12월 01일

게재확정일 11년 12월 13일

점을 고려하면 여성결혼이민자의 노인에 대한 태도는 부모 부양의식 및 부양행동을 예측할 수 있다는데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노인에 대한 태도 선행연구를 보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9-16]와 간호학과와 사회복지학과 학생, 노인복지 전문가, 간호사, 가정 봉사원 등 노인 관련 직업 종사 및 예정자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17-21], 그리고 청년, 중년, 노년세대를 대상으로 한 연구[22] 등이 있으나 국내 여성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한 노인에 대한 태도를 연구한 논문은 전무하다. 특히, 여성결혼이민자의 특성 즉, 개인적 특성, 한국 및 모국 가족 특성과 노인에 대한 태도와의 관련성을 다룬 연구가 없어 이 논문에서는 이러한 특성을 중심으로 탐색적으로 다루고자 하였다.

따라서 이 연구의 목적은 여성결혼이민자의 개인적, 한국 및 모국 가족 특성에 따른 노인에 대한 태도와 이를 예측하는 변인을 파악하여 고령화 및 다문화 사회를 대비한 부양 제언을 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연구목적 달성을 위한 연구문제는 첫째, 여성결혼이민자의 개인적 특성, 한국 가족 및 모국 가족 특성에 따른 노인에 대한 태도는 어떠한가?, 둘째, 여성결혼이민자의 노인에 대한 태도를 예측하는 특성은 무엇인가?로 설정하였다.

2. 이론적 배경

2.1 태도의 개념

많은 학자들이 태도의 개념을 규정하였는데 그 중 Fishbein과 Ajzen[4]은 태도를 어떤 주어진 대상, 생각, 사람에게 긍정적 또는 부정적으로 반응하는 경향으로 정의하였다. 즉, 태도란 일종의 평가이며 경향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지속성을 갖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홍대식[32]도 태도는 그 개인이 대상에 갖는 신념들의 강도와 반응에 대한 평가의 합수라고 정의하여 Fishbein과 Ajzen[4]의 정의와 맥을 같이 하고 있다.

한편 학자들은 태도가 인지적, 정서적 및 행동적 요소를 포함하고 있는 복합적 개념[23]이라는데 의견을 같이 하고 있다. 인지적 요소는 대상에 대한 개인의 관념과 지각에 관한 것이며, 정서적 요소는 대상에 대한 느낌과 감정에 관한 것, 그리고 행동적 요소는 대상에 대한 행동 경향을 의미하는데 노인에 대한 태도는 주로 정서적 요소를 반영한다.

노인에 대한 태도 측정은 Tuckman과 Lorge[24]에 의해 처음 이루어졌으며, 이들은 태도 측정을 위해 노인에 대한 오해(misconception)와 고정관념(stereotype)으로 구

성된 문항을 사용하였다. 반면 Sanders 등은[16] 태도의 정서적 요소를 평가하면서 노인에 대한 태도를 형용사 쌍들로 이루어진 노화의미분별척도(Aging semantic differential scaling: SD)를 제작하여 측정하였으며, 국내에서 많이 활용되고 있어 본 연구에서도 이 척도를 여성결혼이민자의 태도 측정에 적용하였다.

2.2 선행연구 분석

노인에 대한 태도 정도와 태도 관련 변인을 중심으로 고찰하면 성별에 따른 청소년들의 노인에 대한 태도는 대부분의 연구가 여자 청소년이 남자에 비하여 긍정적인 것으로 보고하였다[11,15,16]. 반면 여자 대학생보다 남자 대학생이 노인의 태도에 대하여 긍정적이라는 상반된 결과[13]도 나타났다. 연령에 따라서는 다양한 연구 결과가 나타났다. 중년세대가 청소년 및 노년세대보다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고[22], 대학생이 중고생보다 더 부정적이고[11,13,14], 고등학생이 중학생보다는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9]. 반면 김은경[10]의 연구는 대학생들의 노인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 우호적이라는 상반된 결과를 보고하였다. 그리고 노인 관련 분야 종사자들의 노인에 대한 태도를 살펴보면 노인복지전문가[18]와 가정봉사원[17]의 노인에 대한 태도 점수는 중립적인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간호사의 노인에 대한 태도는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18].

한편 노인에 대한 태도는 노인과의 관계와 친밀감, 동거여부 등 다양한 변인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즉, 김민혜[21]는 노인과의 동거경험, 친인척 및 일반 노인에 대한 경험, 노인분야 복지 욕구, 노인분야 교육 계획 등이 유의미한 변인으로 보고하였다. 또한 노인과의 접촉 경험이 많을수록 노인에 대한 태도에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20,12,25-28]. 노인과의 접촉이 중요한 이유는 노인에 대한 막연하고 모호한 인식을 줄이고, 세대 간 심리적 거리를 줄이거나[29], 서로에 대한 부정적 편견을 감소시키며[30], 청소년 자신이 노화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인식하는데 기여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31].

여성결혼이민자의 특성을 중심으로 한 노인에 대한 태도 연구가 전혀 없어 이들의 노인에 대한 태도는 어떠한가, 관련 변인은 어떠한지에 대한 탐색적 연구를 하였다.

3. 연구방법

3.1 조사대상

이 연구의 대상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

제3호와 「국적법」 제4조에 의거 국적의 취득 여부와 관련 없이 한국인 남자와 혼인한 적이 있거나 혼인관계에 있는 여성 외국인인 여성결혼이민자로 하였다.

조사대상 지역은 조사의 편리성과 한국어 능력의 어려움으로 인한 설문조사의 곤란함을 고려하여 유의표집(purposive sampling)하였으며, 지역별 조사대상자는 서울 특별시가 26.0%로 가장 많고, 다음 광주광역시 21.6%, 대전광역시 14.9%, 인천광역시 14.4%, 경기도 일산시 9.8%, 충남 당진군 9.1%, 충남 서산시 4.2%였다. 분석에 활용된 전체 여성결혼이민자 수는 592명이다.

조사대상자의 연령은 평균 32.5세이며, 20대가 43.0%로 가장 많았고, 30대가 39.3%, 40대 이상은 17.8%로 나타나 20-30대의 젊은 층이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교육수준은 고졸이상이 45.9%, 전문대졸이상이 23.0%로 나타나 대체로 교육수준은 높은 편으로 조사되었다. 거주지별로는 도시 거주 66.4%, 농촌 거주 33.6%로 도시에 거주하는 여성결혼이민자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직업 유무는 전체 대상자 중 무직이 65.6%를 차지하였으며, 종교는 무교가 39.5%, 기독교 19.6%, 불교 18.7% 순으로 조사되었다. 출신국별로는 베트남이 26.2%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고, 다음으로는 중국(조선족), 필리핀, 중국(한족, 기타 민족), 일본, 몽골, 캄보디아 순으로 조사되었다. 한국 거주기간은 1-5년 미만이 42.4%로 가장 많았으며, 5-10년 미만이 30.2%로 조사되었다.

3.2 자료수집 방법

자료 수집은 대부분의 여성결혼이민자의 한국어 능력이 낮은 수준인 점을 고려하여 두가지 방법을 활용하였다. 연구자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방문, 다문화가족상담원과 한국어 강사에게 설문의 취지를 설명하고, 이들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방문한 여성결혼이민자 집단에게 설문을 읽어주고 설문지에 응답하도록 하였다. 둘째, 조사원인 다문화복지를 전공으로 하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의 취지, 설문요령 등을 교육한 후 이들이 다문화가정을 방문하여 한국어가 능통하지 않은 여성결혼이민자에게는 설문지를 읽어주고 응답하도록 하였고 한국어가 능통한 경우는 여성결혼이민자가 읽고 자기가 기입하는 방법으로 설문하였다.

자료 수집은 2010년 3월부터 6월까지 4개월에 걸쳐 이루어졌다.

3.3 조사도구

3.3.1 노인에 대한 태도

노인에 대한 태도 척도는 Sanders 등[16]이 개발한 의

미분별 척도를 한정란[13]이 번역한 것을 사용하였다. 척도는 현명한, 친절한, 행복한, 믿을 수 있는 등 총 20문항으로 되어 있으며,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부터 “매우 그렇다” 7점 Likert 척도이다. 본 연구에서 척도의 신뢰도 Cronbach's $\alpha = .925$ 로 나타났다.

3.3.2 노인에 대한 태도 관련 변인

노인에 대한 태도 관련 변인은 개인적, 한국 가족 및 모국 가족 특성으로 구분하였다. 먼저 개인적 특성은 여성결혼이민자의 연령, 교육수준, 거주지(농촌, 도시), 출신국(중국조선족, 중국한족, 베트남, 일본, 대만, 몽골, 태국, 캄보디아, 우즈베키스탄, 기타)을 조사하였다. 한국 가족 특성은 배우자의 교육수준, 가정소득(5점 Likert 척도), 부모 동거 여부(동거, 비동거)로, 모국 가족 특성은 모국 부모부양 희망(5점 Likert 척도), 모국 가족과의 연락(5점 Likert 척도)으로 조사하였다.

3.4 자료 분석

자료는 SPSS PC+ Win. 17.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노인에 대한 태도 척도의 문항내적일치도인 Cronbach's α 계수를 산출하였으며, 여성결혼이민자의 특성에 따른 노인에 대한 태도 차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t-test와 One-way ANOVA, 사후검정으로 모집단의 등분산을 가정하는지 여부에 따라 Duncan과 Dunnett(T3)을, 그리고 노인에 대한 태도 예측 변인을 파악하고 특성별로 비교하기 위하여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4. 연구의 결과 및 해석

4.1 여성결혼이민자의 특성에 따른 노인에 대한 태도

여성결혼이민자의 개인적 특성, 한국 가족 및 모국 가족 특성에 따른 노인에 대한 태도를 파악하기 위하여 t-test와 One-way ANOVA를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개인적 특성의 연령($F=5.149$, $p=.006$)과 거주지($F=2.760$, $p=.006$)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으나 교육수준과 출신국은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즉, 연령에 있어서는 40대 이상이 20대와 30대보다 노인에 대한 태도에 있어 보다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연령의 증가가 노인에 대한 긍정적 태도가 증가하기 때문으로 간주된다. 거주지에 있어서는 농촌의 여성결혼이민자가 도시에 비해 노인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농촌 여성결혼이민자가 한국 농촌의 높은 가족주의

가치관과 효의식에 영향을 받거나 모국 농촌에서의 경험의 결과 나타난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여성결혼이민자의 한국 가족 특성에 따른 노인에 대한 태도에서 배우자의 교육수준(F=5.102, p=.006)과 가정소득(F=12.762, p=.000)에 따라서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으나 부모와의 동거여부에 따라서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즉, 배우자의 교육수준이 전문대졸이상인 경우가 중졸이하, 고졸보다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가정소득이 ‘보통’, ‘넉넉한 편/매우 넉넉하다’라고 응답한 결혼이민자가 ‘약간 부족하다’라는 응답보다 노인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이며, ‘매우 부족하다’라고 응답한 결혼이민자가 ‘약간 부족하다’라는 응답보다 부정적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들은 교육 및 소득의 특성이 노인에 대한 태도를 반영하고 있음을 나타냈다.

여성결혼이민자의 모국 가족 특성의 모국 부모 부양 희망(F=9.618, p=.000)과 모국 가족 연락(F=4.612, p=.010)

[표 1] 여성결혼이민자의 특성에 따른 노인에 대한 태도 차이

[Table 1] Differences in attitudes toward the elderly according to characteristics of women immigrants

<N=592>

구 분		N	M	SD	t값/F	Duncan/T3	
개인적 특성	연령	20대(A)	246	4.3955	.97817	5.149**	C>A=B
		30대(B)	225	4.2415	1.04113		
		40대 이상(C)	102	4.6272	1.04250		
		전체	573	4.3762	1.02213		
	교육 수준	초졸 이하	31	4.1599	1.17622	2.534	NS
		중졸	146	4.5637	1.02172		
		고졸	260	4.3254	.97412		
		전문대졸 이상	132	4.3098	1.04713		
	거주지	전체	569	4.3739	1.01928	-2.760**	
		도시	382	4.3003	.94366		
	출신국	농촌	187	4.5500	1.14448	2.258	NS
		중국	187	4.4068	1.01870		
		베트남	149	4.4727	1.06116		
		필리핀	90	4.1156	1.04060		
		일본	41	4.2316	.85973		
기타	106	4.4640	.98862				
전체	573	4.3762	1.02213				
한국 가족 특성	배우자 교육 수준	중졸이하(A)	79	4.1871	.79934	5.102**	C>A=B
		고졸(B)	309	4.3280	1.09382		
		전문대졸이상(C)	154	4.5885	.93781		
		전체	542	4.3815	1.02047		
	가정 소득	매우 부족(A)	37	3.6495	.87546	12.762***	C=D>B>A
		약간 부족(B)	139	4.1528	1.00914		
		보통(C)	323	4.4840	.96482		
		넉넉한 편/매우 넉넉함(D)	65	4.7135	1.13548		
		전체	564	4.3741	1.02197		
	부모 동거 여부	동거	243	4.4095	1.05552	.624	
비동거	317	4.3550	1.00335				
모국 가족 특성	모국 부모 부양 희망	전혀/그렇지 않다(A)	103	4.0733	.94021	9.168***	C=D>A=B
		보통(B)	113	4.1361	.91059		
		그렇다(C)	236	4.4601	1.05921		
		매우 그렇다(D)	109	4.6732	.97929		
	모국 가족 연락	전체	561	4.3652	1.01544	4.612*	C>B
		전혀/거의 하지 않음(A)	59	4.3307	1.21949		
		가끔 함(B)	235	4.2283	.99740		
		자주/매일 함(C)	272	4.4997	.96740		
전체	566	4.3694	1.01497				

*p<.05, **p<.01, ***p<.001

모두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노인에 대한 태도는 모국 부모 부양 희망에 대한 설문에 ‘매우 그렇다’, ‘그렇다’라고 응답한 집단이 ‘전혀/그렇지 않다’, ‘보통’이라고 응답한 집단에 비해 긍정적으로 나타나 모국의 부모에 대한 부양 의지가 노인에 대한 태도에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모국 가족 연락의 정도는 ‘자주/매일 한다’라는 응답이 ‘가끔 한다’라는 응답보다 긍정적으로 나타나 모국 가족과의 연락 의지가 노인에 대한 긍정적 태도에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4.2 여성결혼이민자의 노인에 대한 태도 예측 변인

노인에 대한 태도에 대한 위계적 회귀분석의 기본가정을 충족하는지 확인한 결과 잔차의 독립성을 파악하는 Durbin-Watson은 1.758로 정상범위(0-2) 내의 값을 가지며, 극단치를 파악하는 Mahalanobis와 Cook의 거리는 각각 1.268-23.550, 0.000-0.044, 그리고 중심화된 Leverage 값은 0.002-0.045로 정상범위 내에 있었다. 또한 다중공선성을 파악하는 공차한계(Tolerance)는 0.854-0.974, 그리고 상승변량(VIF)은 1.027-1.149로 각각 정상범위 1이하와 1-9를 벗어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회귀분석을 위한 기본가정을 충족하였다.

평균비교분석(t-test, One-way ANOVA)을 통하여 유의미한 변인 즉, 개인적 특성의 연령과 거주지, 한국 가족 특성의 배우자 교육수준과 가정소득, 그리고 모국 가족 특성의 모국 부모부양 희망과 모국 가족연락을 위계적으로 투입하였다. 투입한 독립변인의 전체 설명량은 12.8%였으며, 개인적 특성은 1.7%, 한국가족 특성은 8.6%, 그

리고 모국 가족 특성은 2.6%를 설명하여 한국 가족 특성의 설명량이 가장 많았다.

모형4에서 개인적 특성은 연령($t=2.765, p=.006$)과 거주지($t=3.903, p=0.000$)가 노인에 대한 태도의 유의미한 예측변인으로 나타났고, 한국 가족 특성은 가정소득($t=5.394, p=0.000$), 그리고 모국 가족 특성은 모국 부모부양 희망($t=3.651, p=0.000$)이 예측변인으로 나타났으며, 그 중에서 한국 가족 특성인 가정 소득이 가장 영향력있는 예측변인이었다.

5. 논의, 결론 및 제언

이 연구는 여성결혼이민자의 특성에 따른 노인에 대한 태도를 파악하고 노인에 대한 태도를 예측하는 변인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연구의 결론을 제시하면서 논의된 다음과 같다.

첫째, 여성결혼이민자의 개인적 특성에 따른 노인에 대한 태도는 여성결혼이민자의 연령이 40대 이상이 20대와 30대 보다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대상에서의 차이는 있지만 중고생보다 노인에 대하여 부정적이고[13], 고등학생이 중학생에 비해 부정적이란 연구[9] 결과와 일치하지 않았다. 또한 청년, 중년, 노년세대 중 중년 여성의 노인에 대한 태도가 가장 부정적이라는 연구[22]와 차이를 보였다. 그러한 이유는 한국의 중년 여성들에게 시부모는 부양의 대상이지만 여성결혼이민자에게는 시부모가 한국 사회적응을 위한 조력자라는 차이 때문으로 보인다. 거주지에 있어서는 농촌의 여성결

[표 2] 노인에 대한 태도에 대한 위계적 회귀분석
[Table 2] 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 of attitudes toward the elderly

(N=592)

독립변인		노인에 대한 태도		
		모형1	모형2	모형3
		B(β)	B(β)	B(β)
개인적 특성	연령	.009(.070)	.014(.105)*	.015(.117)**
	거주지(농촌=1)	-.266(-.096)**	.374(.173)***	.365(.169)***
한국 가족 특성	배우자 교육수준		.131(.087)	.105(.070)
	가정 소득		.351(.261)***	.319(.237)***
모국 가족 특성	모국부모부양희망			.147(.152)***
	모국 가족 연락			.069(.055)
F		4.436*	14.778***	12.646***
R ² 변화량		.017	.086	.026
R ²		.017	.103	.128

*p<.05, **p<.01, ***p<.001

혼이민자가 도시의 여성결혼이민자에 비해 노인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농촌 여성결혼이민자가 대부분 개발도상국의 농촌 출신이거나 한국 농촌의 특성 즉, 가족주의 가치관과 효의식의 영향을 받은 결과로 유추할 수 있다.

둘째, 여성결혼이민자의 가족 특성에 따른 노인에 대한 태도는 배우자의 교육수준이 전문대졸이상인 경우가 중졸이하, 고졸보다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가정소득이 '보통', '넉넉한 편/매우 넉넉하다'고 응답한 결혼이민자가 '약간 부족하다'는 응답보다 노인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이며, '매우 부족하다'고 응답한 결혼이민자가 '약간 부족하다'는 응답보다 부정적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들에 대한 선행연구 즉, 배우자의 교육수준과 가정소득에 따른 노인에 대한 태도에서 차이를 보이는 선행연구가 없으나 이 연구에서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여성결혼이민자의 노인에 대한 태도 연구에서 주목할 부분이다. 따라서 이러한 변인에 대한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셋째, 여성결혼이민자의 모국 가족 특성에 따른 노인에 대한 태도는 모국 부모 부양 희망에 대한 질문에 '매우 그렇다'와 '그렇다'라고 응답한 집단이 '전혀 그렇지 않다/그렇지 않다'와 '보통'이라고 응답한 집단에 비해 긍정적으로 나타나 노인에 대한 태도가 모국의 부모에 대한 부양 의지로부터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모국 가족 연락의 정도는 '자주/매일 한다'는 응답이 '가끔 한다'는 응답보다 노인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으로 나타나 모국 가족과의 연락이 모국 부모의 친밀한 관계를 나타내며 이는 다시 노인에 대한 긍정적 태도에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결과는 모국 부모 부양을 희망하고 모국 원가족과의 좋은 관계를 유지할 때 노인에 대한 태도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넷째, 여성결혼이민자의 개인적 특성, 한국 가족 및 모국 가족 특성 중 한국 가족 특성 이 노인에 대한 태도에 가장 많은 설명력을 나타냈다. 또한 개인적 특성은 연령과 거주지가, 노인에 대한 태도에 유의미한 예측변인으로 나타났고, 한국 가족 특성은 가정소득, 그리고 모국 가족 특성은 모국 부모부양 희망이 예측변인으로 나타났으며, 그 중에서 가정 소득이 가장 영향력있는 예측변인으로 나타났다. 가정 소득이 가장 영향력있는 변인이라는 점은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여성결혼이민자의 노인에 대한 태도 관련 변인 중 선행연구와 다른 점이다. 이는 여성결혼이민의 이민 동기가 삶의 질 향상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이러한 가정 소득 향상이 곧 노인에 대한 태도에 큰 영향을 주고 있음을 시사한다.

연구의 제한점을 제시하면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

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이 연구는 여성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노인에 대한 태도와 관련 변인을 연구하였으나 선행연구가 없어 관련 변인들에 대한 충분한 고찰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추후에 여성결혼이민자의 특성을 다룬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길 기대한다.

둘째, 이 연구의 두가지 자료수집 방법 모두 여성결혼이민자의 낮은 한국어 능력으로 진술한 응답을 얻는데 적합한 방법으로 보기는 어렵다. 또한 설문지를 외국어로 번역하여 설문하는 경우 타당도 등의 문제가 있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설문지를 번역하여 타당도 검사를 거친 후 설문하는 방법을 시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이 연구는 연구의 편의에 의하여 일부 지역의 여성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따라서 이 연구의 결론을 전국의 여성결혼이민자에게 적용하는데 주의가 요구된다.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이 연구는 여성결혼이민자에 주목하고 노인에 대한 태도를 이들의 세가지 특성을 중심으로 다루었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가 있다.

References

- [1] Kim, S. K., Kim, Y., K., Cho, A., J., Kim, H., R., Lee, H., K., Seol, D., H., Jeong, K., S., & Sim, I., S. Current status of national multicultural family in Korea. Policy Report, 2010-06. 2010.
- [2] Ministry of Justice. Yearly statistics of immigration services, 2010.
- [3] Lee, S. S., Choi, H. J., & Park, S. J. Impact of multi-cultural family on quantity and quality of population in Korea. Aging and Low-fertility Research Division,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34(1). 2009
- [4] Fishbein, M., & Ajzen, I. Belief, attitude, intention, and behavior: An introduction to theory and research. Reading Mass: Addison-Wesley Pub. Co. 1975.
- [5] Park, M. G. Effects of Women's College Students' Knowledge and Attitudes toward Elderlies on Consciousness about Supporting the Aged. MS dissertation of Kosin University. 2007.
- [6] Ko, G. A. A study of the KOREAN youth's consciousness about taking care of the aged. Ph.D. dissertation of Ewha woman's University, 1990
- [7] Lee, W. H. & Kwon, Y. S. A Study on the Influence of Family Members and Awareness of the Elderly on

- Supporting the Aged. Child Education, 14(12), 165-178. 2005.
- [8] Park, Y. S. Grandparent-Adolescent Relationships. MS dissertation of Ewha woman's University, 1990.
- [9] Lee, G. R. A Study on the Strategies in Planning and Implementing intergenerational programs through Comparative Study of Attitudes toward Older Persons among Generations. Journal of Welfare for the Aged, 26, 143-164, 2004.
- [10] Kim, E. G. The Effects of Grandparents Related Variables on College Students' Attitudes toward the Elderly. Journal of Korea Gerontological Society, 23(3), 63-77, 2003.
- [11] Han, J. R. Youth's Attitudes toward the Elderly. Journal of Korea Gerontological Society, 23(4), 181-194, 2003.
- [12] Won, Y. H., Kim, D. B., Lee, K. R. & Han J. R. The Impact of the Elders' Voluntary Activities on Middle-school Students' Attitudes toward the Elderly. Journal of Korea Gerontological Society, 22(2), 131-146, 2002.
- [13] Han, J. R. Undergraduate Students' Attitudes Toward Elderly. Journal of Korea Gerontological Society, 20(3), 115-128, 2000.
- [14] Seo, B. S., & Kim, S. H. A Study on the Elderly Image of University Students. Journal of Korea Gerontological Society, 19(2), 97-111, 1999.
- [15] Hawkins, J. L., College students attitudes toward elderly person, Educational Gerontology, 22(3), pp. 271-280, 1996.
- [16] Sanders, G. F., Montgomery, J. E., Pittman, Jr. J. F., & Balkwell, C., Youth's attitudes toward the elderly, Journal of Applied Gerontology, 3(1), pp. 59-70, 1984.
- [17] Kim, M. H. Knowledge and Attitude toward the Elderly of the Home Helpers. Journal of Welfare for the Aged, 37, 203-224, 2007.
- [18] Cho, E. Y. Analysis of attitudes and knowledges toward the elderly among the medical doctors and nurses. MS dissertation of Hanseo University, 2006.
- [19] Lee, Y. M. A study on Welfare Professionals' Attitudes toward the Elderly, 2003. MS dissertation of Ewha woman's University, 2003.
- [20] Kim, S. G., Yang, G. Mi., Oh, H. Y., & Kim, J. S. Nursing and Social Welfare Students' Knowledge and Attitudes toward the Elderly. Journal of Korea Gerontological Society, 22(3), 21-36, 2002.
- [21] Kim, M. H. Social welfare student's attitudes toward the Elderly. Journal fo Social Sciences, 8, 1-11, 2002.
- [22] Kim, Y. J. Kang I., Lee, C. S. A Study on Attitudes toward Older Adults. Journal of Korean Home Management Association, 22(1), 63-77, 2004.
- [23] Allport, G. W., Personality: A psychological interpretation, New York: H. Holt & Company, 1973
- [24] Tuckman J., Lorge, I., The influence of a course on the psychology of the adult on attitudes toward old people and old workers,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43, pp. 400-407, 1952.
- [25] Kim, K. S. A study on young people's view of the aged. MS dissertation of Seoshin Woman's University, 1987.
- [26] Park, G. R. The Effects of Parent-Grandparent Relationship Quality for the Grandparent Grandchild Relationship. Journal of Korea Gerontological Society, 14(2), 74-89, 1994.
- [27] Cho, S. H. A Study on the welfare plan for the aged through analysing college student's attitude toward the aged. MS dissertation of Busan University, 1990.
- [28] Barton, H., Effects of an intergenerational program on the attitudes of emotionally disturbed youth toward the elderly, Educational Gerontology, 25(3), pp. 623-640, 1999.
- [29] Knox, V. J., Gekoski, W. I., & Johnson, E. A., Contact with and perceptions of the elderly, The Gerontologist, 26, pp. 309-313, 1986.
- [30] Caspi, A., Contact hypothesis and inner-age attitudes: A field study of a cross-age contact, Social Psychology Quarterly, 47, pp. 47-80, 1984.
- [31] Bringle, R. G., & Kremer, J. F., Evaluation of an intergenerational service-learning project for undergraduates, Educational Gerontology, 23(3), pp. 656-670, 1993.
- [32] Hong, D. S. Social Psychology, Seoul : Parkyoungsa. 1987.

박 지 영(Ji Young Park)

[정회원]



- 2010년 3월 ~ 현재 : 고구려대학 다문화복지과 조교수

<관심분야>
다문화복지, 노인복지

이 창 식(Chang Seek Lee)

[정회원]



- 1993년 2월 ~ 현재 : 한서대학교 아동·청소년복지학과 교수

<관심분야>

평생교육, 다문화교육